

실존장소와 인지장소의 존재론적 구분과 건축문화유산 보존에서 개인·집단 정체성의 역할

An Analysis of the Ontological Distinction between Existentially experienced and Cognized Places and the Role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Identity in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정 태 호* 한 승 훈**
Jeong, Tae-Ho Han, Seung Ho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ontological distinction between Existentially experienced places and cognized places, and argues that existential places constitute the foundational basis for individual and communal identity in the context of architectural heritage preservation. Drawing on the philosophy of Martin Heidegger and the spatial theories of Christian Norberg-Schulz, the study defines existential places as spaces shaped by lived experience and memory, highlighting their significance as a key element in sustaining cultural identity. It further contends that such places should be prioritized in heritage conservation practices, thereby offering new insights for architectural heritage policies, spatial design, and preservation discourse.

키워드 : 실존장소, 인지장소, 존재론, 정체성, 장소성, 건축문화유산, 보존

Keywords : Existentially experienced place, Cognized place, Ontology, Identity, Placeness,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건축문화유산은 단순히 물리적 형태를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삶과 집단의 정체성이 축적된 실존적 장소로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에는 건축유산 보존이 주로 역사적 가치 평가나 외관 유지에 치중해 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그 유산이 실제로 인간의 삶과 어떻게 관계 맺어 왔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를 간과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해, 건축문화유산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켜켜이 쌓인 기억, 경험, 사건, 정서가 공동체의 삶을 지탱해온 정체성의 근거지라는 점이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문화유산을 “실존장소(Existentially experienced Place)”와 인지장소(Cognized Place)”로 구분하여, 보존을 단순한 외형 유지에서 벗어나 정체성 형성의 자리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실존장소는 몸의 체류와

감각의 몰입, 기억과 사건이 축적된 경험의 자리로, 공동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어가는 본질적 기반이 된다. 반면 인지장소는 정보와 이미지, 사회적 상상을 통해 구성되며, 실제 거주 경험 없이 소비적 성격을 띠기 쉽다. 따라서 두 개념의 철학적·건축적 차이를 밝히는 것은 건축문화유산 보존의 본질적 의미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는 특히 실존장소가 지니는 정체성 형성 능력이 건축문화유산 보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임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건축문화유산은 과거의 흔적을 단순히 보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재생산하는 실존적 기반임을 밝히고자 한다.

1.2 핵심 개념 정의 : 실존장소와 인지장소

본 연구는 장소에 관한 기존 논의를 확장하기 위하여 ‘실존장소’와 ‘인지장소’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며, 이를 기존의 ‘실존적 장소’와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실존적 장소(existential place)’는 주로 노르베르그-슐츠(Christian Norberg-Schulz)의 건축이론에서 강조된 개념으로,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 속에서 장소가 지니는 존재론적 의미를 밝히려는 시도와 긴밀히 연결된다. 이 개념은 장소를 단순히 배경이나 물리적 구조로 이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토목공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shoon@jnu.ac.kr)

해하지 않고, 인간 실존을 지탱하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장(場)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론적 논의만으로는 개별 주체가 구체적 경험을 통해 마주하는 장소적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존장소(Existentially experienced place)’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 ‘실존장소’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주요 외국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신조어로, 특정 현존재가 직접 체험과 경험을 통해 의미를 부여한 장소를 지칭한다. 즉, 경험과 기억, 정서와 감각이 응축되어 존재론적 깊이를 획득한 장소라는 점에서, 실존장소는 기존의 실존적 장소와 차별화된다. 반대로 ‘인지장소(imagined place)’는 주체가 실제로 방문하거나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헌, 매스미디어, 지도 등 간접적 매체를 통해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머릿속에 형성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소를 보편적 차원의 실존적 장소(existential place), 개별적 체험의 실존장소(Existentially experienced place), 간접적 인식의 인지장소(imagined place)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규정한다. 이와 같은 구분은 장소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간과 장소의 관계가 단순한 물리적 접촉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험과 인지라는 이중적 층위에서 동시에 형성됨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건축문화유산 보존 담론과 장소에서의 정체성 탐구를 주요 범위로 설정한다. 특히, 건축문화유산을 단순한 물리적 외형이나 객관적 가치의 보존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장소를 통해 인간의 삶과 경험이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하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실존장소(Existentially experienced Place)”와 “인지장소(Cognized Place)”의 존재론적 구분을 중심 축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구분은 건축문화유산이 단지 외형적 보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기억, 경험, 정체성과 직결되는 본질적 과제임을 드러내는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존을 “형태의 보존”에서 “경험과 정체성의 보존”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먼저, 철학적·건축학적 담론에서 제시된 실존장소와 인지장소 개념을 고찰하여 각각의 개념적 특성과 존재론적 의미를 정리한다. 이어 기존의 건축문화유산 보존 논의 속에서 이 두 개념이 어떻게 수용되거나 간과되어 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보존 담론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도출한다. 또한 장소와 정체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실존장소가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자 보존 정당성의 핵심이 됨을 논증한다. 이를 토대로 건축문화유산 보존을 해석할 수 있는 존재론적 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정책 수립, 공간 설계, 보존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건축문화유산 보존을 물리적·외형적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건축문화유산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과 삶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실존적 장소임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2. 이론적 배경

2.1 존재론적 장소 개념: 하이데거와 노르베르그-슐츠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세계 내 존재(Dasein)”로 정의하며, 장소란 단순한 좌표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거주하고(wohnen), 존재를 드러내는 자리로 본다. 그의 사상에서 장소는 객체로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존재가 열린 ‘발현의 장’이며 그 자체로 존재적 의미를 가진다.

노르베르그-슐츠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공간 이론으로 확장하면서, ‘실존적 공간(Existential Space)’과 ‘장소성(Place-ness)’ 개념을 정착시킨다. 장소는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의미·감정·기억·시간의 층위가 응축된 실존의 틀이다. 그는 인간이 ‘장소에 자리잡을 수 있을 때’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건축은 그 장소를 창출하는 실천임을 강조했다.

2.2 인지장소 개념과 인문지리학적 시각

인지장소는 공간을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외부 정보나 매체 이미지, 문화적 서사 등을 통해 구성된 간접적 장소이다.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제시한 ‘인지 지도(cognitive map)’ 이론은 도시·공간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미지로 인식하는 방식에 주목하면서, 인지된 장소가 정체성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인지장소는 실질적 삶의 체험보다 정보적 표상에 기반하기 때문에, 존재론적 깊이가 결핍될 수 있다. 그 결과, 장소와 주체의 관계가 단순히 ‘의미화된 이미지’ 수준에서 머물며, 자기 정체성의 토대가 되기에는 취약한 특성이 있다.

3. 실존장소와 인지장소의 존재론적 구분 및 비교

3.1 실존장소와 인지장소의 특성

장소는 인간의 경험 방식에 따라 실존장소와 인지장소로 구분될 수 있다. 실존장소는 인간이 세계와 직접 관계 맺으며 흔적과 감각, 기억을 남기는 장소로, 신체적 체류와 정서적 몰입, 의미의 내면화를 통해 성립한다. 이곳은 실제 경험이 각인된 존재의 체현의 장이자, 삶의 사건과 시간이 퇴적된 기억의 저장소,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나-되기(self-becoming)’가 실현되는 정체성의 거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실존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삶의 실체와 정체성이 축적·재생산되는 본질적 자리로 이해된다.

반면 인지장소는 직접적인 체험이 아닌 간접적 정보, 미디어, 사회적 상상 등을 통해 형성된 ‘인식된 공간’이다. 사람은 그곳에 실존한 적이 없지만, 이미지·지도·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장소를 그려낸다. 이러한 인지장소는

정보 기반의 구성과 상징·이미지의 우위라는 특징을 지니며, 실존적 경험의 결여로 인해 장소가 내면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인지장소는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과 깊게 연결되되, 표층적이고 소비적인 장소 이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3.2 실존장소와 인지장소 비교

실존장소와 인지장소는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이들의 차이는 존재 인지 방식, 정체성 형성과의 관계, 시간성과 기억의 층위, 그리고 장소성의 밀도에서 확인된다.

첫째, 두 장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존재 인지 방식이다. 실존장소는 신체적 체류와 경험적 존재를 통해 인지되지만, 인지장소는 정보와 이미지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이는 기억을 축적하는 주체가 물질적 경험인가 비물질적 매개인가의 차이로 이어진다.

둘째, 정체성 형성과의 관련성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실존장소는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 되는 반면, 인지장소는 부수적·상징적 역할에 머무른다.

셋째, 시간성과 기억의 층위에서도 구별된다. 실존장소는 시간의 경과 속에서 다양한 사건이 퇴적되며 기억이 적층되지만, 인지장소는 정보 매개에 의존하여 일회적이고 단절적이다. 따라서 연속성이 부족하면 보존의 지속성도 취약해진다.

마지막으로, 장소성의 밀도에서 실존장소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심층적 힘을 지니지만, 인지장소는 비물질적 개념과 연상에 의존해 그 밀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표 1이 보여주듯, 실존장소는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자 보존의 중심적 토대가 되며, 인지장소는 보조적·상징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Table 1. 실존장소와 인지장소의 차이점

항목	실존장소	인지장소
존재 방식	신체적 존재, 경험	정보·이미지 기반 인식
장소의 정체성	정체성 형성의 기반	보조적 혹은 상징적 의미
시간성과 기억성	삶의 층위, 퇴적된 기억	일회적·비경험적 정보
장소성과 밀도	심층적 장소성, 삶의 기반	개념적 장소성, 표상 기반의 연상

4. 건축문화유산 보존에서 실존장소 중심의 접근 논증

4.1 존재론적 정당성의 기반으로 실존장소

건축문화유산은 단지 과거의 흔적을 전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한 개인과 공동체가 실제로 거주하고 존재했던 실재의 장소이다. 이곳에는 삶의 사건, 감정, 기억이 켜켜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험적 층위가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실존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유산 보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본질적

근거가 된다.

하이데거가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에서 강조했듯이, 건축은 단순히 집을 짓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 속에 거주(Wohnen)하며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인간은 건축을 통해 세계와 관계 맺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자신의 존재를 사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물리적 잔존물이 아니라, 인간이 거주하고 사유했던 장소이자, 존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존장소는 ‘머물고-살며-의미를 찾는 과정’이 응축된 자리로, 그 자체가 정체성 형성의 원천이 된다. 여기서의 정체성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서사와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실존적 자기 이해다. 이 때문에 실존장소의 보존은 단순히 외형을 유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 속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존재론적 필연성을 지닌다. 결국 건축문화유산은 과거를 보여주는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거주했던 삶과 존재의 흔적을 간직한 장소이며, 이러한 특성이 바로 유산 보존의 본질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4.2 실존장소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람이 성장한 골목, 의례가 치러진 마을회관, 공동체가 함께 겪은 사건의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의 심리적 토대를 이룬다. 이러한 장소들은 시간 속에서 삶의 경험과 기억이 켜켜이 쌓여 의미를 획득하며, 보존은 결국 공간의 외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응축된 삶의 흐름을 지속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노르베르그-슐츠가 『장소의 혼(Genius Loci)』에서 지적했듯이, 인간은 특정 장소의 고유한 성격을 인식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장소는 단순한 공간적 좌표가 아니라, 빛·소리·재료·기후·사건과 같은 요소들이 어우러져 인간의 거주 경험 속에 스며드는 총체적 환경이다. 따라서 실존장소는 개별적 삶의 경험이 심리적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정체성의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존이란 물리적 구조의 재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혼이 담긴 삶의 흔적과 경험을 보존하는 것이다. 실존장소는 기억과 정체성이 응축된 자리이기에, 정보와 이미지로만 구축되는 인지장소로는 대체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실존장소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고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반이자, 건축문화유산 보존이 갖는 존재론적 정당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4.3 인지장소 보존의 한계

인지장소의 보존은 그 특성상 여러 한계를 지닌다. 첫째, 정보나 이미지에 기반한 장소는 실제 경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 향유가 약하다. 이는 장소가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체화되지 못한 채, 표면적 인식에 머무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인지장소는 종종 상업적 소비와 결합하거나 기호의 휘발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과 깊게 연결되기 어렵다. 상징과 이미지가 빠르게 교

체되거나 소모되면서 장소가 지닌 지속적 의미가 약화되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 기억과 경험과 호응하지 않을 경우, 인지장소의 보존은 실질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단순한 “보여주기식 유산”에 머무르기 쉽다. 즉, 외형적으로는 보존의 틀을 갖추더라도 내면적 정당성과 공동체적 기반이 부족하여 보존의 본질적 의미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4.4 실존장소 중심 보존 전략 제시

실존장소를 중심으로 한 보존 전략은 물리적 형태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 장소가 지닌 삶의 경험과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지역주민 구술사 기반 보존 기획과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이야기, 감정, 삶의 사건을 수합하고 해석함으로써, 장소가 담아온 기억을 보존 과정 속에 반영할 수 있다. 둘째, 공동체 기반 참여 설계가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외형을 재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민과 방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장소’를 되살리는 설계로 이어져야 한다. 셋째, 보존의 핵심은 형태 보존 뿐만이 아닌 경험 보존에 있다. 장소에 축적된 감각적 흔적과 시간의 층위를 보존 설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간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서 실존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실존장소가 지닌 존재론적 의미를 드러내고, 건축문화유산 보존을 삶과 정체성의 자리로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건축문화유산을 실존장소와 인지장소의 존재론적 구분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실존장소가 보존에서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 형성의 핵심 기반임을 밝혔다. 실존장소는 삶의 경험과 기억, 정서적 귀속이 작동하는 실제의 장소로 단순한 이미지나 정보로 대체될 수 없으며, 반면 인지장소는 현대 사회에서 확대되는 ‘정보화된 장소’로서 실제 없는 소비적 성격에 머무를 위험이 크다. 따라서 문화유산 보존은 기억과 존재의 장소로서 실존장소를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 이는 학문적으로 건축문화유산 보존 담론에 존재론적 관점을 부각시킨다는 의의를 지니며, 실천적으로 정책과 공간 설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존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정서적·사회적 층위를 규명하고, 이를 설계와 보존 전략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적 차원에서는 구술사 자료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전하는 서사와 해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체의 삶과 기억이 보존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건축문화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살아 있는 실존장소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Norberg-Schulz, C. 2001.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2nd ed. (K.-H. Min et al., Trans.). Seoul : Taerim Publishing. 11-17, 27-31, 193-208. (1980).
2. Norverg-Schulz, C. 2000.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 2nd ed. (J.-G. Lee & K-D. Jin, Trans.). Seoul: Sigong Munhwasa. 27-37. (1986).
3. Heidegger, M. 2025. *Being and Time*. 2nd ed. (K.-S. Lee, Trans.). Seoul: Ggachi Publishing. 102-168 (1927).
4. Heidegger, M. 2008. *Lectures and Essays*. 1st ed. (Lee, K., Shin, S., & Park, C., Trans.). Seoul: Ihaksa. 183-209. (2000).
5. Lynch, K. 2003. *Urban Environment Design*. 1st ed. (Y.-H. Han & J.-W. Chung, Trans.). Seoul: Kwangmun-gak Publishing. 129-245. (1960). e-book.
6. Lee, O. J. and Kim, M. D., "The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Space Based on the Theory of Ontological Spa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3, No.4, pp.94-102, 2014